Sermon of the Week:

Isaiah's Vision and the Journey of the Redeemed

Passage: Isaiah 6:1-8 (ESV)

Date: June 29, 2025

Pastor: Dongsuk Chung

To see while one is alive is truly a precious gift. By seeing, we gain knowledge of the world and recognize things for what they are. While seeing with our physical eyes is important, what matters even more is the sight of the inner person—the eyes of the soul. As Ephesians 1:18-19 says, "Having the eyes of your hearts enlightened, that you may know what is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and what is the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 us who believe." The eyes of the body allow us to see the material world, but the eyes of the inner person bring spiritual truths into reality. Spiritual things cannot be perceived with physical eyes, but if the eyes of the inner person are opened and we come to see God, there is nothing more valuable.

Today's passage reveals the four stages that Isaiah saw and experienced regarding the process of salvation for God's chosen people. These are: seeing the Lord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recognizing one's identity as a sinner, receiving God's mercy that forgives this, and understanding the newly created self and the mission that follows.

First, in verse 1, Isaiah sees that though the king of this world, King Uzziah, had died, the Lord was seated on the throne forever. The expression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signifies that He is the great High Priest, and the phrase "seated on a throne, high and lifted up" represents the Lord who has fulfilled the purpose of re-creating the universe. With the eyes of the spirit, Isaiah beheld the One who came in the flesh, died on the cross, rose again, ascended into heaven, and is now seated on the throne.

Like Isaiah, we too must discover Jesus Christ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When we come to know Christ through the Word, we also come to understand our position as one that is united with Him.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cross, we have been reborn as beings with spiritual life from heaven. Confessing Jesus Christ as Lord and giving glory to God is our rightful position [Philippians 2:11]. When we believe and confess this truth through the Word, the Holy Spirit drives out the darkness within us. As we realize our oneness with Christ and come to know Him as our life, guide, and healer, a song of praise naturally wells up from within us, just as it says in the Psalms: "Blessed be the Lord, who daily bears us up; God is our salvation" [Psalm 68:19].

When this gospel is revealed to us through the Word, the second stage is discovering ourselves. As Isaiah confesses in verse 5, "Woe is me! For I am lost;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he realized that he was a person destined to perish. Though it is painful to come to know the true nature of our being, it is the most blessed realization before God. To those who recognize their sinful nature—dead in sin from birth—through the light of the Word, the life of heaven is given. They immediately receive the Word of truth when they hear it. But those who do not recognize their sinful nature and instead chase worldly success through effort and knowledge are ultimately laboring in vain.

Third, once we discover the true God and recognize our sinfulness, we come to know that we have been atoned for. We have been born again by water and the Spirit. As those who have died and risen with Jesus Christ on the cross, we have His wisdom,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within us, and our lives manifest these qualities. This is the position and lifestyle of a saint. Those who have received this identity must not return to striving under the law when they sin. Instead, they must immediately return to the Spirit and hold firmly to this truth: "I am a child of God. I am forgiven." This is the life of Christians who believe with the heart and confess with the mouth,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salvation [Romans 10:10]. The more this truth becomes rooted in us, the more we are kept from sinning.

Finally, after receiving atonement comes the call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Isaiah responded, "Here I am! Send me" (v. 8). This is the lifelong mission of all who are in the faith. The Lord, who now works through the Spirit, seeks those who will speak and act as His hands and feet—those who bear His image and likeness. When we die to ourselves and Christ lives in us, and His wisdom, righteousness, and holiness are expressed in our daily lives, that is when the church is formed. It is there that the Holy Spirit powerfully works.

May Isaiah's calling become our calling today, and may the rest of our lives be lived in a way that expresses only Jesus.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net

information@nasungchurch.net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82 02-2293-4421

http://samsungch.or.kr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63호

삼나소식

나성교회 삼성교회

7월 13일, 2025년 NASUNGCHURCH.NET 63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이사야 6장 1-8절

날짜: 6월 29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본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앞을 봄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고, 사물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속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19절에서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은 물질 세계를 보게 하지만, 속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영적인 내용이 실제가 되게 합니다. 신령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게 된다면, 그것만큼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 대해 이사야가 발견하고 경험한 네 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 이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 새로 창조된 나와 그다음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이사야는 세상의 왕 웃시야는 끝났지만,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는 표현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심을 의미하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는 말씀은 우주 재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는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될 때, 주님과 하나된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위치이며(빌 2:11),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고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됨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인도자요 치료자이심을 알게 되면, 시편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시 68:19)라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고백하듯, 이사야는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될 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로 죽어 있는 본질을 빛을 통해 아는 사람, 곧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임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본질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배우고 애쓰며 성공을 좇는 것은 결국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면, 속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된 자로 예수가 가진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내 안에 있어 그걸 나타내는 삶이 성도의 위치이자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율법을 지키려는 자리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즉시 영 안으로 들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용서받은 자다'라는 정체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 이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롬 10:10). 이것이 충실히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마지막은 "나를 보내소서"라는 사명입니다 (8절). 이 말은 믿음 안에 있는 자가 평생 해야될 일입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팔다리,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필요하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그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이사야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며 남은 생애가 예수님으로만 표현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나성교회 일정

-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VBS가 7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있습니다.

삼성교회 일정

-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7/26 - 7/27
-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7/31 - 8/2
- 청소년부/청년부 연합수련회: 8/15 - 8/17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의 건강회복과 쾌유를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제인 송 집사 - 신장이 아파 병원에 급히 입원했습니다. 신장 관련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1-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 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성도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대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소식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나성교회 EM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a. Ruth and Austin Kuklenski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주 간 소 식

- 다음 주일에는 각 남녀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 이번 주간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여름성경학교 VBS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주일 예배에 새로 참석하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 옆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삼나소식 온라인

삼성교회 삼나소식

나성교회 삼나소식